



# 대외 수출입 대폭 상승, 무역수지흑자 확대 지속

이소양 연구원

■ 9월 중국 대외 수출 및 수입은 시장전망치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무역수지흑자는 전월대비 확대되었는데, 이로 인해 4/4분기에 중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.

-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9.9% 증가(시장전망치 5.5%)한 1,864억 달러, 수입은 2.4%(시장전망치 2.0%) 증가한 1,587억 달러를 기록함.
  - 수출증가율은 6월 11.3%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7월(1.0%)과 8월(2.7%)의 부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, 수입증가율도 2.4%를 기록해 전월(-2.6%)에 비해 회복세를 보임.
- 9월 무역수지흑자 금액은 시장전망치(224억 달러)를 대폭 상회한 277억 달러를 기록, 전월 267억 달러에 비해 확대됨.
-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대유럽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에 따른 대미(美), 대일(日) 및 대신홍국 수출 증가가 9월 무역수지흑자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됨.
  - 9월 대유럽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.7% 대폭 감소한 반면, 대미(美), 대일(日) 및 대신홍국(동남아시아국가연합, 러시아 및 브라질) 수출은 각각 5.5%, 2.2% 및 10%이상 증가함.
- 또한 중국정부가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수출세환급, 수입보조금, 신용대출 확대 등으로 구성된 16개의 수출입진흥책을 도입하는 것도 대외수출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.
- 전문가들은 9월 대외 수출입 증가율이 모두 시장전망치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을 감안해 중국경제가 4/4분기를 기점으로 안정적 성장세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함.

■ 반면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 덩샹(丁爽)은 중국 대외 교역이 9월에 호조세로 나타났지만 주요 교역대상국인 유럽 및 일본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으로 향후 수개월 이내에 다시 둔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.

- 1월~9월까지 대미(美) 및 대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교역액은 각각 3,554억 달러, 2,889억 달러로 9.1%, 8.1% 증가했으나, 대유럽 및 대일(日) 교역액은 각각 4,110억 달러, 2,488억 달러로 2.7%, 1.8% 감소함.

- 올해 상반기 무역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8.0%를 기록했는데 7월 7.1%, 8월 6.2%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9월 6.2% 증가에 그침.
- 또한 1월~9월까지 무역액 증가율이 2조 8,42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.2% 증가했는데 중국정부의 목표치 10%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.

(WSJ, 10/13, Reuters, 10/15 등)